석사학위 작품해설집

불편한 공유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김 현 미

석사학위작품해설집

지도교수 박인숙

불편한 공유

2013년 12월 17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김 현 미

석사학위작품해설집

지도교수 박인숙

불편한 공유

위 해설집을 무용학 석사학위 작품 해설집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17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무용공연전공

김 현 미

김현미의 무용학 석사학위 작품 해설집을 인준함

2013년 12월 17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목 차

Ⅰ. 작품개요 ····· 1

1. 작품의 주제설정 및 의도 ····· 1
2. 작품구조 및 내용 ····· 2
3. 의상효과 ····· 3
4.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 4
5.공연프로그램 요약 ····· 5

Ⅱ. 작품의 창작과정: 불편한 공유 ····· 7

1. 장면 1 : 공공장소 ····· 7
 1) 내용 및 구조 ····· 8
 2) 안무의도 ····· 8
 3) 움직임 표현방법 ····· 9
 4) 조명 ····· 10
 5) 음악 ····· 10
2. 장면 2 : 낯선 타인 ····· 11
 1) 내용 및 구조 ····· 11
 2) 안무의도 ····· 12
 3) 움직임 표현방법 ····· 12
 4) 조명 ····· 13
 5) 음악 ····· 13

3. 장면 3 : 숨은 공간 찾기 ····· 14
1) 내용 및 구조 ····· 14
2) 안무의도 ····· 15
3) 움직임 표현방법 ····· 15
4) 조명 ····· 16
5) 음악 ····· 16

Ⅲ. 작품후기 ····· **17**

【부 록】 ····· 20
1. 공연 프로그램 ····· 20
2. 연습사진 ····· 21

【 표 목 차 】

[표 1] 작품의 구성 ····· 2
[표 2] 공연프로그램 요약 ····· 5

【 그 림 목 차】

〈그림1〉 장면 1 ····· 10
〈그림2〉 장면 2 ····· 13
〈그림3〉 장면 3 ····· 16

【 사 진 목 차】

〈사진1〉 의상 ····· 3
〈.사진2〉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 4
〈사진3〉 장면1. 공공장소 ····· 7
〈사진4〉 나만의 공간 ····· 9
〈사진5〉 타인의 공간 ····· 9
〈사진6〉 장면2. 낯선 타인 ····· 11
〈사진7〉 공간에 대한 경계 ····· 12
〈사진8〉 공간에 대한 집착 ····· 12
〈사진9〉 장면3. 숨은 공간 찾기 ····· 14
〈사진10〉 쟁탈전 ····· 15
〈사진11〉 타인의 입장 ····· 15

Ⅰ. 작품개요

1. 작품의 주제설정 및 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감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내심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개개인의 공간을 소유하길 원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혼자만의 공간처럼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장소 안에서도 나만의 위치를 찾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그 안에 낯선 사람들의 침범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껴 방어 태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안무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안무자는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 작품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인공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인 공간 안으로 타인이 허락 없이 침범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한다. 타인이 자신의 공간에 침범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또는 뺏긴 자신의 공간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다.

일정하지 않은 개인공간 안에서의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벌어지는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신경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작품구조 및 내용

[표 1] 작품의 구성

제목	불편한 공유
의도	일정하지 않은 개인 공간 안에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신경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	타인이 허락 없이 침범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한다.
음악	Yann Tiersen의 Ballendai, 모그의 Police & Kyungchul 편곡
시간	15분 50초
소품	가로 2m × 세로 2m 크기의 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독립적이며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개인공간은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며 그것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친밀도가 전혀 없는 타인이 개인공간에 허락 없이 침범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한다. 주어진 공간이 공공장소라고 봤을 때,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우리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신의 공간도, 타인의 공간도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는 이 같은 감정을 느껴도 침묵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며 살아간다.

3. 의상효과

〈사진1: 의상 〉

네 명의 여자무용수인 점을 감안하여 치마를 착용하였다. 각자 다른 치마길이와(또는 바지) 각자 다른 색깔의 의상을 입고 있지만 정해진 색깔은 와인과 검정이다. 포인트를 주기 위하여 빨강색을 착용하고 싶었지만 네 명의 무용수들이 무난하지 않고 강해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톤이 낮은 와인색을 택하였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의상의 디자인을 달리 한 반면, 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써 색깔을 통일시켰다.

4.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사진2: 소품활용 및 표현방법〉

이동 막에 부착된 천은 무용수의 특정 신체부분만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2m x 세로2m 크기로 제작하였다. 관객석에서 보여 지는 평면적인 천에 그려진 각진 디자인은 공적인 공간을 의미하면서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 디자인의 색은 개개인의 개성이 다름을 의미한다.

천에는 사람의 손과 팔만 나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있는데 이는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는 것처럼 무용수의 손과 팔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의도이다.

5. 공연프로그램 요약

[표 2] 공연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불편한 공유
일 시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장 소	M 극장
안무자	김현미
출연진	유지은, 조연희, 이세실
의상디자인	김현미
무대감독	김정웅
조명감독	김진아
영상감독	이동헌

김진선

"변화를 위한 노력"

출 연 진

이규리

작품내용

나는 항상 생각한다.

그리고 그생각은 변화한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멈출 수없다.

그것은 아마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김현미

"불편한 공유"

출 연 진

유지은 · 조연희 · 이세실

작품내용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개인공간에 타인이 허락없이 침범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하는데,

일정하지 않은 개인공간안의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되는 심리적인 신경전을 보이고자한다.

2013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13. 11. 21 THU 07:00 pm

장 소 M극장 주 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홍지명

"뫼비우스의 띠"

출 연 진

이다솜 · 김소연 · 김재권 · 전중근

작품내용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계루는 것을 경쟁이라고 한다.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그들이 견뎌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며, 그로인한 경쟁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회로 가기위한 경쟁은, 또 다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되어버리고 그 모습은 마치 기계와도 같다.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쟁의 모습을 표현한다.

손효주

"유유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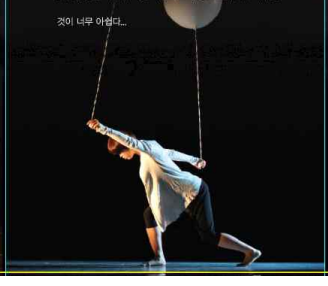
출 연 진

김혜진

작품내용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은 않은 시간흐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실망감과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도 흘려가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



HANSUNG UNIVERSITY

무용학과 지도교수

박 영 애 교수_이론

김 경 자 교수_이론

박 인 숙 교수_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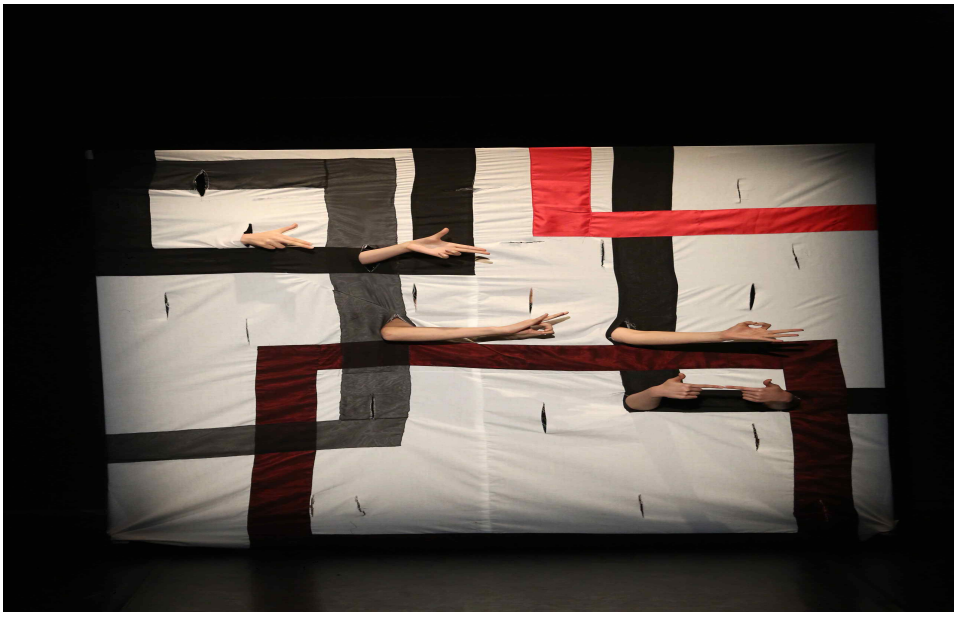
박 재 홍 교수_발레

김 남 용 교수_한국

Ⅱ. 작품의 창작과정: 불편한 공유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개인공간에 타인이 허락 없이 침범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하는데, 일정하지 않은 개인 공간 안에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신경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장면 1: 공공장소



〈 사진3: 장면 1,공공장소 〉

1) 내용 및 구조

① 내용

나는 이 안에 있다.

너는 저 안에 있다.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착각한다.

나는 저 안에, 너는 이 안에

불필요한 신경전...

② 구조

천(가로2m x 세로2m)이 Center Up Stage 위치에 있다. 천은 공적인 공간을 뜻하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간이다.

세 명의 무용수(B, C, D)는 개인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으로 인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안무의도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공적인 공간에 속해 있을 때 이 공간이 타인에게 침범되어 불쾌감을 가지더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무용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존재임을 모르고 자신만의 공간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불쾌감은 서로를 더욱 경계하게 되고 탐색하게 된다.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움직임 표현방법

천을 이용하여 공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무용수들의 손과 팔을 사용하여 특정한 제스처의 반복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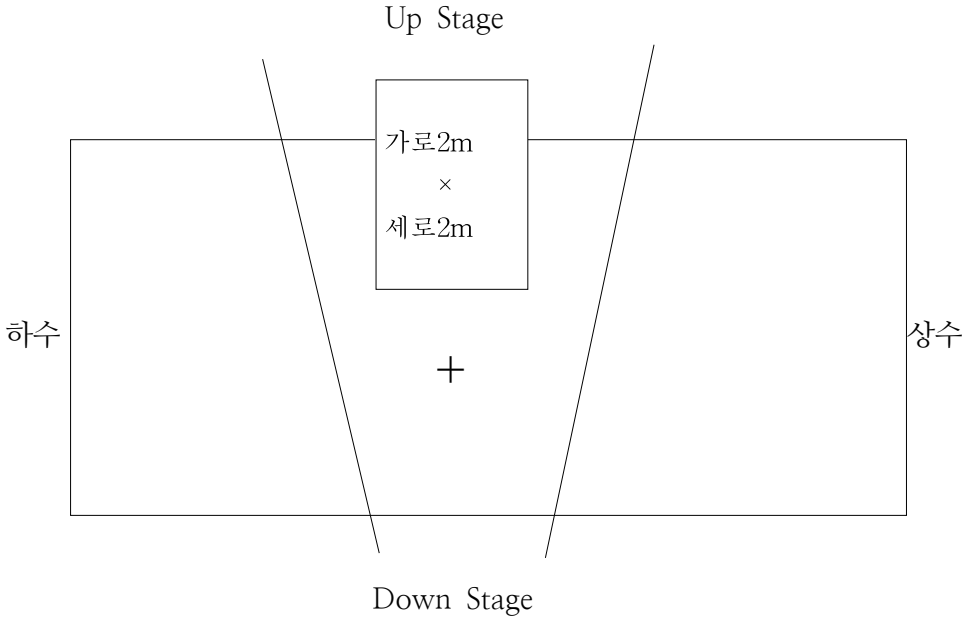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소리,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서로가 불편한 반응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천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였다.

〈사진4: 나만의 공간〉

〈사진5 : 타인의 공간〉

4) 조명

무대 Center Up Stage에 위치한 천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Center Up Stage에만 조명을 비추게 하였다. 관객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천에 초점을 두어 무대 앞쪽에서 비추어 손의 표현을 극대화시켰다.



〈그림 1: 장면 1〉

5) 음악

서로의 공간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손과 팔의 움직임이 주로 돋보이고 잘 보일 수 있게 표현한 1장은 몽환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2. 장면 2 : 낯선 타인

〈사진6: 장면2, 낯선 타인〉

1) 내용 및 구조

①내용

우리들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
옆으로 몸을 돌려도, 등을 지고 되돌아가 봐도,
어떤 공간에서나 타인은 존재한다.

②구조

Center에 조명(공간을 의미함)이 들어온다. 무용수A는 공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여 편안함을 느낀다. 그 공간에 무용수B가 등장하여 갈등이 시작된다. 나만의 공간에 있던 무용수A가 무용수B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다른 공간을 찾는다. Left Down Stage에 또 다른 공간 안에는 무용수C가 있다. 무용수A는 그 공간을 차지하려 그 공간속에 침범한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무용수A는 무용수C로 인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무용수C의 발목을 잡고 버티고 있는 동시에 Right Up Stage에 조명이 들어온다. 무용수A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 편한 자세를 취하나 무용수D가 등장해 무용

수A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결국 무용수B, C, D에게 공간을 뺏기고 무용수A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퇴장한다. 공간 안에서 나와 타인과의 불편한 모습을 보여준다.

2) 안무의도

나만의 공간에 타인이 침범한다. 경계를 시작으로 하여 타인에게 나만의 공간을 빼앗기면 다른 공간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명의 무용수의 소극적인 태도에 중점을 둔다. 이 장면에서는 소극적인 무용수의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려 하였다. 무용수의 감정의 변화는 또 다른 타인과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딪힘으로써 공간을 차지하려고 애쓴다. 뺏고 빼앗기며 타인과의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3) 움직임 표현방법

무용수들의 바디 컨텍(Body Contect)을 주로 사용하였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보여주기 위하여 처음에는 상대방의 손목이나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움직임이, 껴안고 매달리는 움직임으로 발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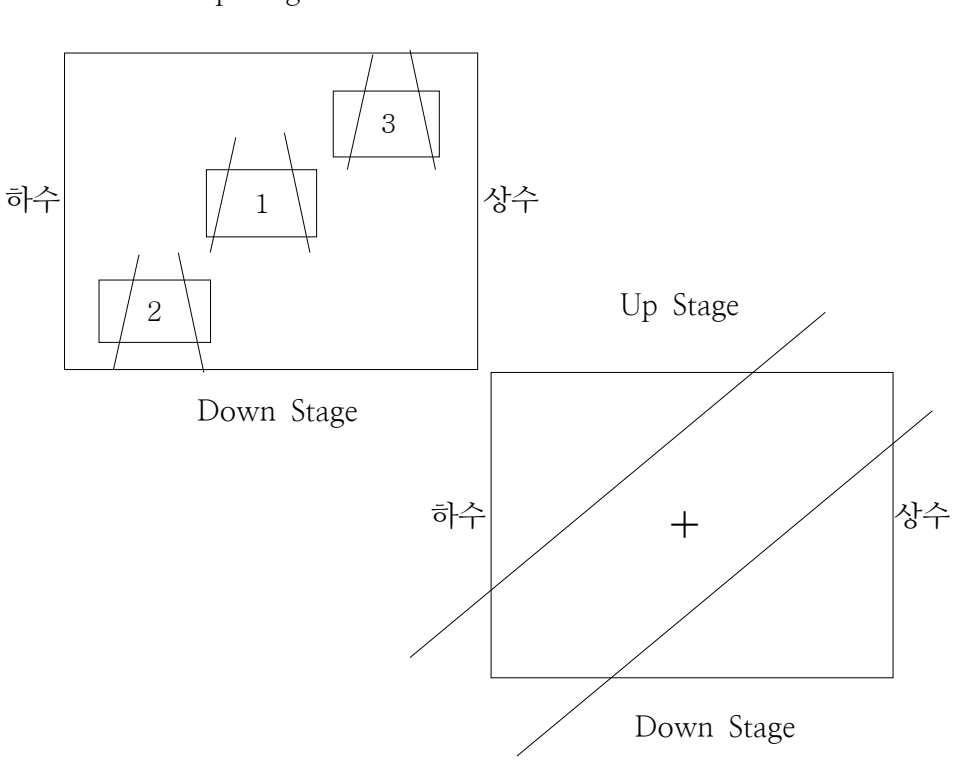
더욱 극적인 효과를 위해 플로어(Floor)를 이용한 동작(구르기, 슬라이딩)을 통해 몸을 플로어(Floor)에 밀착시킴으로써 공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진 7 : 공간에 대한 경계〉

〈사진 8 : 공간에 대한 집착〉

4) 조명

세 개의 같은 크기의 스퀘어(Square) 조명을 사용하여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세 개의 스퀘어(Square)조명이 시간차로 켜지는데 이는 자기만의 공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 개의 조명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공간이 형성됨을 보여주지만 무용수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됨을 암시한다.



〈그림 2: 장면 2〉

5) 음악

처음에 무음으로 시작한다. 느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고 천천히 서로의 공간을 탐하기 시작한다. 느린 음악이 끝난 뒤, 빠른 음악이 나오면서 더욱 더 긴장되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차지한다.

Yann Tiersen의 Ballendai

3. 장면 3: 숨은 공간 찾기

〈사진9: 장면3, 숨은 공간 찾기〉

1) 내용 및 구조

①내용

무너진다. 선다. 들어간다.

찾았다. 뺏겼다.

무너진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 나만의 공간은 없었다.

결국 우리의 공간일지도, 아닐지도.

②구조

무용수B, C, D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을 탐색한다. 조명의 Cut In, Cut Out이 반복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 개의 조명이 공간이 하나 됨을 뜻하는 사선 길 조명으로 전환되면서 무용수A가 등장한다. 하나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

들려고 하는 나와 타인과의 신경전을 보여준다. 네 명의 무용수들의 신 경전은 더욱 고조된다.

2) 안무의도

공간을 차지한 세 명의 무용수들과 공간을 차지하지 못한 한 명의 무용수가 몸을 이용하여 스퀘어(Square)를 만든다. 이 스퀘어(Square)는 조명으로만 만들어졌던 공간의 축소를 의미한다. 공간의 축소로 인해 무용수들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상승한다. 무용수 신체 안에서 만들어진 스퀘어(Square)는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부분을 나타내었다.

3) 움직임 표현방법

네 명의 무용수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스퀘어(Square)를 만드는 것이 중점이다. 그 스퀘어(Square)는 조명으로만 만들어졌던 공간의 축소를 의미한다. 무용수들은 서로가 만들어놓은 공간에 자신의 신체를 집어넣는 행동으로 공간이 축소되었음을 표현한다. 2인무에서 3인무, 3인무에서 4인무로 이루어지면서 좁은 공간은 더욱 더 좁아지고 공간을 차지하려는 무용수의 감정이 격해져 서로가 뒤엉켜 공간을 차지하려는, 또는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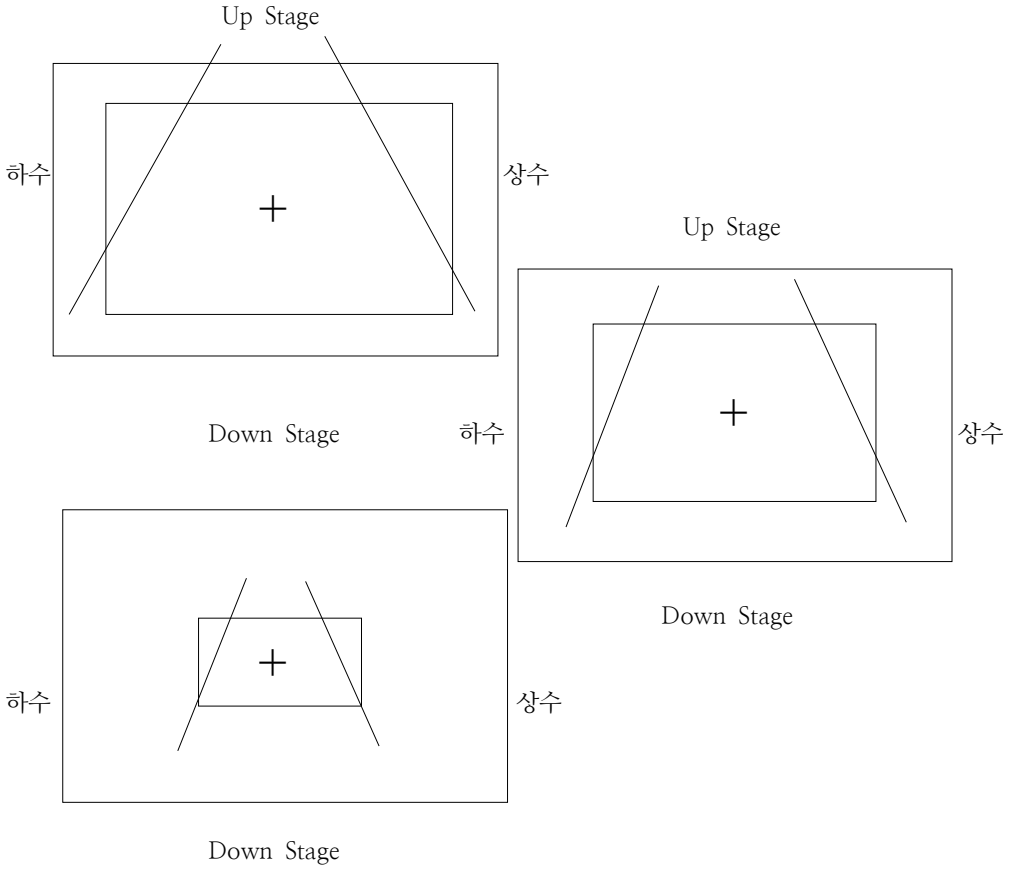
〈 사진 10: 쟁탈전 〉

〈사진 11: 타인의 입장〉

4) 조명

무대에 꽉 차지만 무대를 벗어나지 않는 스퀘어(Square)조명을 시작으로 점점 작아진다. 스퀘어(Square) 조명이 작아지는 이유는 공간 안에서의 압박과 불안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네 명의 무용수가 위태로워 보일 수 있게, 또는 불편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스퀘어(Square)조명을 최대한 축소시킨다.



〈그림 3: 장면 3〉

5) 음악

무게감이 있는 기타 베이스의 낮은음으로 시작하여 점점 소리가 커지고 비트가 빨라진다. 최고조의 표현인 마지막 장면에서의 음악은 내면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고자 격렬한 음악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음악에 맞춰 무용수의 움직임과 표현력을 극대화 시켰다.

모그의 Police & Kyungchul

Ⅲ. 작품 후기

이번 졸업 작품을 올리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주제설정부터 표현방법에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감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내심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개개인의 공간을 소유하길 원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혼자만의 공간처럼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장소 안에서도 나만의 위치를 찾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그 안에 낯선 사람의 침범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껴 방어 태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나는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 안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연을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연출이었다.

무대를 올리는 데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그 무대를 어떻게 꾸미고 또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은 연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주제로 설정하여 바깥으로 꺼내 만들어내는 작업 속에서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퀘어(Square) 모양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간〉, 〈스퀘어(Square)〉를 떠올리며 작품에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천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입체감이 돋보일 수 있게 많은 표현 방법을 떠올려 보았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천을 제작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때의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많이 나와 1차원적이어서 무용보다는 연극 같은 표현방법이 나왔었다. 그리고 단지 큰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과 손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고, 다음으로 큰 어려움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천 위에서 무용수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성이 높아서 어려움이 따랐다.

다음에 다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모양의 각종 천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조명이었다. 스퀘어 탑(Square Top)조명을 사용하

여 작지만 강한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극장 측의 문제나 조명장치로 인해 원하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어서 큰 불편함을 겪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의상이나 다른 방법보다는 스퀘어(Square)를 중심으로 오브제나 조명, 동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작품의도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나에게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많았다.

연출에 있어서 단순히 안무만을 돋보이게 하는 과정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안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꼈다.
객석에서 관객의 입장으로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한 동작이나 의상, 무용수의 신체가 주안점이 되었다면 안무자의 입장이 되어 무대를 올리고자 했을 때에는 무대 연출과 어울리는 조명, 소품, 의상 등 다양한 요소뿐만 아니라 주제를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동작들을 연구하는 것에 중요성을 느꼈다.

주제에 너무 집중하여 생각하다보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하고 보여주고자 했다. 허나 그것은 작품의 본질을 잃을 수 있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치 속담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안무가의 욕심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이고자 했던 점이 오히려 작품에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한 동작도 의미 없는 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동작 하나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뜻이 있어야 한다. 이번 무대를 만들면서 안무 안에서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이 뜻처럼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 작품을 만들 때에는 본질이 확실한 안무를 해내는데 조금 더 치중하고자 한다.

작품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겉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것을 무대에 올려 관객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연을 접하고 많은 서적을 접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관객들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이해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안무가는 너무 어렵지 않은 무대를 올려야만 한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만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뜻만을 표현하는 무대가 아닌 이해관계가 동등한 공연이 비로써 훌륭한 공연인 것을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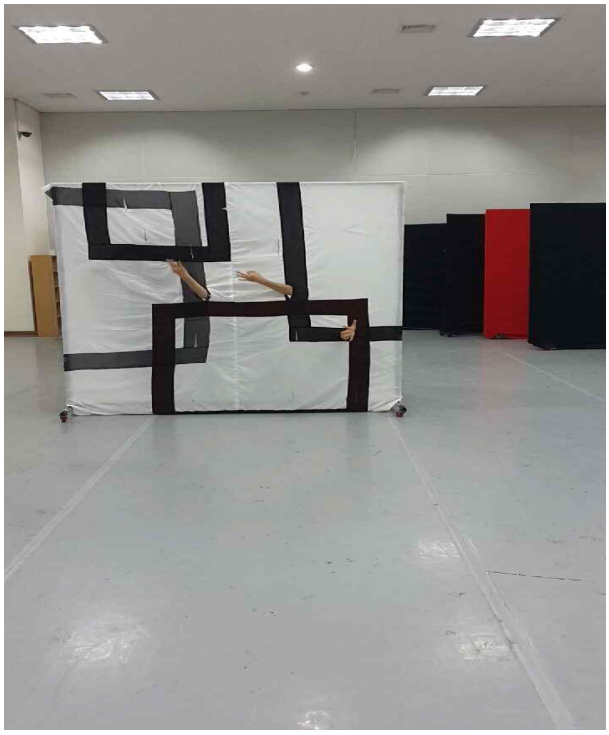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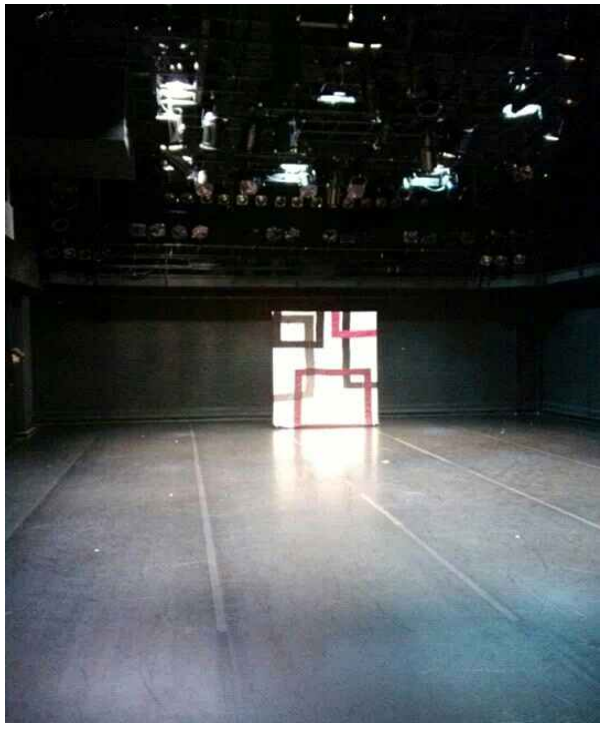
평소에 공연들을 접하면서 관객의 입장이 되어 작품들을 단순하게 평가하고 쉽사리 생각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작품들과 공연들이 무엇 하나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행과정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다음 작품은 작품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 와준 무용수들 지은, 연희, 세실에게 미흡한 선배의 작품에 열정을 다해 도와주고 이끌어준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싶었고, 저의 미흡한 작품을 시간 내셔서 심사해주신 김경자교수님, 박영애교수님, 박재홍교수님, 김남용교수님, 국민대학교 강경모교수님, 안신희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지도를 맡아주신 박인숙교수님, 몇 차례 시간 내주셔서 작품을 지도해주시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　　록】

〈공연 프로그램〉

김진선
"변화를 위한 노력"
출 연 진
이규리
작품내용
나는 항상 생각한다.
그리고 그생각은 변화한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멈출 수없다.
그것은 아마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김현미
"불평한 공유"
출 연 진
유지은 · 조연희 · 이세실
작품내용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공간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개인공간에 타인이 허락없이 침범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방어태세를 취하는데,
일정하지 않은 개인공간안의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소, 확대, 경계를 하게되는 심리적인 신경전을
보이고자한다.
2013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13. 11. 21 THU 07:00 pm
장 소 M극장 주 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홍지명
"뫼비우스의 띠"
출 연 진
이다솜 · 김소연 · 김재권 · 전중근
작품내용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겨루는 것을 경쟁이라고 한다.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그들이 꺾어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며, 그로인한 경쟁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회로 가기위한 경쟁은, 또 다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되어버리고 그 모습은 마치 기계와도 같다.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쟁의 모습을 표현한다.
손효주
"유유히"
출 연 진
김혜진
작품내용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은 않은 시간흐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실망감과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도 흘려가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
HANSUNG UNIVERSITY
무용학과 지도교수
박 영 애 교수_이론
김 경 자 교수_이론
박 인 숙 교수_현대
박 재 홍 교수_발레
김 남 용 교수_한국

〈연습사진〉